

강호동의 주말 예능 복귀작 첫 방송



강호동의 주말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반반의 친구들>이 4월 21일(일) 첫 방송되었다. 강호동, 윤종신, 김범수, 유세윤, 은혁, 김현중, 윤시윤, 유이 등 각각각색의 개성을 가진 출연진들은 베트남에서 직접 숙식을 해결하며 현지인처럼 살아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였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윤시윤이 사전 정보도 철저하게 숙지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임하여 보기 좋았다", "색다른 예능 버라이어티로,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100회 특집, '못매남'의 매력에 빠지다

2011년 3월 23일(수) 첫 방송 이후,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 '사랑'을 생각하고 내 '짝'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아 온 <짝>이 4월 17일(수) 100회를 맞았다. 그 동안 남자 295명, 여자 232명으로 총 500여명의 청춘남녀가 애정촌에 다녀갔으며, '국민형아', '정우성을 닮은 의지왕', '농촌 7간지', '돌진구남' 등 개성강한 남성들과 '야생마녀', '중전마마', '50kg 감람녀' 등 당당하고 솔직한 여성들이 등장하여 매회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 갔다. 47기까지 매 기수마다 평균 2커플 이상 맺어졌으며, 외로운 청춘들은 애정촌에서 짝을 찾아갔고, 총 다섯 쌍의 부부가 프로그램을 거쳐 탄생했다. 4월 10일(수)과 17일(수) 방송된 <짝> 48기는 '못매남' 특집으로,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못생겼지만 매력 있는 남자들이 짝을 찾는 과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시간대 이동에도 안정적인 시청률 기록

4월 14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시간대를 옮겨 첫 방송된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이하 웃찾사)이 5.6%(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방송된 <웃찾사 리턴즈>(4.3%)에 비해 1.3% 상승한 수치이다. <웃찾사>는 <개그투나잇>의 인기코너인 '뽀글뽀', '개투제라블', '용선생' 등과 새 코너인 '귀요미', '강남 엄마', '정때문에', '캘피언 명구'를 적절히 배치해 토요일 심야 시간대에서 일요일 오전으로의 시간대 변경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이에 대해 <웃찾사>의 연출을 맡고 있는 이영준 PD는 "<웃찾사>를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개그로 꼭 <웃찾사> 이름에 걸맞은 더 큰 웃음을 드리겠다"라며 시청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수상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제국>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가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에서 각각 대상과 평화부문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4월 25일(목) 오전 11시에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SBS 라디오 개편 프로그램 소개

러브FM의 도약을 꿈꾼다

대낮의 댄스 클럽 <헬로우 미스터 록기> (진행 : 홍록기 / 연출 : 전재훈)

4월 15일(월)부터 월~금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까지 방송되는 <헬로우 미스터 록기>는 오후부터 클럽까지 음악이 끊길 틈이 없이 진행되고, 시원한 댄스 음악과 DJ 홍록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재치 있는 멘트까지 더해져 청취자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나른한 오후 졸릴 틈을 주지 않는 <헬로우 미스터 록기>는 추억을 파고드는 8090 음악으로 청취자들의 격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복고 라디오의 화끈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주말 청취자의 정점을 책임진다 <이세준, 최재훈의 도시락(樂소)> (진행 : 이세준, 최재훈 / 연출 : 김광대)

<이세준, 최재훈의 도시락(樂소)> 역시 4월 20일(토)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주말 청취자들의 정점까지 책임지는 방송 <이세준, 최재훈의 도시락

<樂소>는 나들이 길에 어울리는 90년대 히트곡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른한 주말 정오에 일하는 청취자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드리는 도시락까지 준비했다. <이세준, 최재훈의 도시락(樂소)>는 매주 토, 일요일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함께 할 수 있다.

파워FM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We are the music!" 국내 유일의 음악 전문 DJ 프로그램 <애프터 클럽>

2013년 봄 계절을 맞아 매일 새벽 3시에 전파를 타고 있는 <애프터 클럽(Alter Club)>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유망한 음악인 7명을 DJ로 발탁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인기 팝 칼럼니스트 배순락, 여성락커 물령겐, 김장범(푸디토리움), DJ 소울스케이프(DJ Soul Scape), 프라이머리(Primary), 기타리스트 박주원, 하우스 아티스트 프리하우스(Freakhouze)가 심야를 책임지는 음악 마스터로 나선다. '음악'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도 DJ의 개성과 음악적 특성에 따라 매일 7인 7색의 새로운 스타일로 진행된다.

<애프터 클럽>은 최근 설리리를 잃고 있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의 한 대안으로서 청취자와 음악 산업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내일을 위한 솔루션, 초협력(ECOllaboration)을 논하다

'서울디지털포럼(SDF) 2013' 5월 개최

SDF insight for better digital

SBS의 대표적 사회 공헌 플랫폼인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이하 SDF)'이 5월 2일(목), 3일(금) 이틀간 서울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 포럼 SDF의 대주제는 초(超)협력(ECOllaboration), 부제는 '내일을 위한 솔루션(Solutions for tomorrow)'이다. 세계 정상급의 내노라하는 국내외의 50여명의 학자, 기업가, 발명가, 인문학자들이 연사로 확정됐다. 포럼 첫째 날 그랜드 오픈팅을 해 줄 연사는 팀 버너스 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익은, 인터넷 상에 분산돼 있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로, SDF를 위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이자 철학자 중 한사람인 알랭 드 보통은 포럼 둘째 날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기술의 발전이 과연 인간의 행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인문학적 성찰을 들려줄 예정이다.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인 제시카 알바도 SDF 2013 연사에 합류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엔 영화배우가 아니라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사회적 기업의 창립자로서의 역할과 경험 등을 공유하게 된다. 마틴 노박 하버드 대학교수로부터는 초협력에 대한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노박 교수는 다윈이 제시한 변이와 선택에 이어 진화의 근본적인 제 3원칙이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학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알리 로우가니 트위터 최고운영책임자, 피터 알바이 프레지 창립자, 이제벨 카카오 공동대표 등 쟁쟁한 인물들이 연사로 참석해 SDF 10주년을 빛내기 위한 지식 나눔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알리 로우가니 트위터 최고운영책임자, 피터 알바이 프레지 창립자, 이제벨 카카오 공동대표 등 쟁쟁한 인물들이 연사로 참석해 SDF 10주년을 빛내기 위한 지식 나눔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알리 로우가니 트위터 최고운영책임자, 피터 알바이 프레지 창립자, 이제벨 카카오 공동대표 등 쟁쟁한 인물들이 연사로 참석해 SDF 10주년을 빛내기 위한 지식 나눔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주년 맞은 SDF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대표적 글로벌 포럼으로 성장

SDF는 대한민국 최초로 디지털 방송을 도입한 SBS가 200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초청해 개최한 '글로벌 토크'를 모체로 출범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SDF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혁신을 이루어낼 영감을 공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 나눔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포럼이다. 매년 T.I.M.E(Technology, Information, Media, Entertainment)산업과 주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세계 정상급 연사를 초청해 글로벌 차원의 지식 혁명과 산업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의 비전을 한 발 앞서 제시함으로써 여타 포럼과 차별성을 높여 왔다.

SDF는 '컨벤션스 혁명'을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한 이래, '유비쿼터스', '미디어 비평', '상상력'과 '스토리', '초연결 사회'와 '공존' 등을 대 주제로 정

해,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미디어랩 소장(2004년), 앨 고어 前 미국 부통령(2005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200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2008년), 제임스 캐머런 감독(2010년), 팀 오라일리 오라일리그룹 창립자(2012년)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대표적 글로벌 포럼으로써의 위상을 확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DF 10주년의 발자취와 SDF 2013의 행사 내용 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DF 홈페이지(www.seouldigitalforum.org)를 참고하면 된다.

인터뷰 | SDF 사무국 이기성 부장

올해 대 주제인 초협력, ECOllaboration인데 이 단어는 의미 확장을 위해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사전에 없는 단어다. 4개월 동안 수많은 검토와 자문을 받고 이번 SDF 2013을 통해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 주제의 방향을 정했지만, 이것을 담아 낼만한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고심 끝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다. 에콜라보레이션(ECOllaboration)은 협력, 협업을 뜻하는 collaboration에 공감(Empathy)의 E, 생태(Eco system)의 E를 더해 '공감을 통한 상생의 협력'을 의미한다. 요즘 처한 성장이란 표현이 있는데 에콜라보레이션, 초협력을 굳이 한 단어로 말하려고 한다면 '착한 협력', '착한 협업'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10주년을 맞은 SDF를 준비하면서 과거와 가장 차별성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포럼의 '확신'과 '심화'라는 두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SDF가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동안은 오픈이더리더들에 한정해서 초청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대중화가 덜된 면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대폭 참가 기회를 넓혀 확산을 도모했고, 이를 위해 행사장도 워커히 호텔에서 대중적 접근성이 용이한 디큐브아트센터로 바꿨다. 또 9년간 사용한 로고를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교체했다. SDF의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Insight for better digital)도 제작함으로써 SDF 자체 인지도도 높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는 영감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솔루션까지도 제공하는 포럼으로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카이스트, 벤처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필요로 하는 해법 도출을 모색했다. '확신'과 '심화'는 한마디로 포럼의 넓이와 깊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이다.

SDF 10주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번 포럼의 대 주제인 초협력의 정신이 구현됐는데? 지난 9년 동안 SDF는 보도본부에서 만들어 왔지만 올해는 SDF 10주년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SBS 미디어 그룹 전체가 함께 포럼을 만들어 가는 협업 체제의 방식을 띠고 있다. 콘텐츠 제작, 연사 초청, 행사 운영, SDF 특집 방송, 온라인 홍보 등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자, PD는 물론 각 부문에서 협력을 도출해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도본부에서 이룩한 성과는 성과대로 키워나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SDF 팀원들은 3월 중순부터 주말에도 출근하며 올해 SDF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커히 호텔의 객실이 7백석인데 비해 올해 디큐브아트센터는 1천2백석에 가까워 관객을 어떻게 채울까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이 문제는 기우로 끝났다. 개막을 2주일이나 앞두고 신청자가 5천여 명이나 몰리는 바람에 서둘러 신청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SDF 2013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선배들 동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격려를 부탁한다.

Table with 5 columns: Time, Venue, Location, Time, Venue. Rows include 08:30, 10:40, 11:40 with venues like 디큐브아트센터 and 본사.

사내 소식

TV 프로그램 포맷 워크숍' 개최

4월 16일(화) 오후 2시 본사 13층 컨퍼런스룸1에서 '제1차 TV프로그램 포맷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홍순철 편성전략본부장이 'TV 포맷 산업의 이해와 전망', '세계 TV포맷 유통 산업의 국가별 비교', '아이디어 보호와 저작권'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홍순철 편성전략본부장은 "이제 완성된 콘텐츠를 판매하여 광고수익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이디어를 파는 구조로 넘어가야 한다. 포맷 산업이란 한 지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배급을 통해 다른 지역(나라)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파는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포맷을 수출하려는 지역의 정치와 패턴을 파악하고 현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지화 데이터를 통해 기존 포맷으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V프로그램 포맷의 창작에 대해 이야기할 제2차 워크숍은 4월 30일(화) 오후 4시부터 본사 13층 컨퍼런스룸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작본부 '샌드위치 포럼' 실시

지난 4월 16일(화) 본사 17층 드라마연습실에서 제작본부장, 제작 총괄 및 PD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기획과 제작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SBS 스페셜 다큐제작 프로젝트 퓌어박'이라는 재미 있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시사다큐팀 장경수 차장이 <최후의 톤드라>와 <최후의 제국> 등 SBS 다큐멘터리의 명성을 높인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짚어보며 참신하고 효율적인 기획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작본부 '샌드위치 포럼'은 제작본부 PD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분야에 대한 제작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포럼이 끝난 후 샌드위치로 점심을 같이 하며 자유로운 대화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4월23일(화) 오전 10시30분 본사 14층 시사실에서 <런닝맨> 임행택 PD의 편집노하우에 대한 포럼을 실시하였다.

2013년 팀장 리더십 과정 실시

SBS는 4월 16일(화)과 4월 24일(수) 총 2회에 걸쳐 메이필드 호텔 로터스홀에서 2013년 팀장 리더십 과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일정으로는 박연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과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SBS 미디어홀딩스 김성우 상무이사가 '비전 경영과 리더십', 박정영 인코칭 부사장이 '코칭 패러다임과 스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홍순철 편성전략본부장이 참석하는 '경영진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테마연수' 실시

직원들의 창의적 시각과 통찰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테마연수'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글로벌 테마연수는 '정책테마'와 '비전테마'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책테마는 회사의 사업계획이나 혁신과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비전테마는 비전 실현 가치와 관련된 주제를 개인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입사 3년차 이상의 임직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수계획서 내용으로 연수주제와 목적, 현지에서의 세부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수에 선발된 임직원은 하반기 내에 2주~1개월의 기간 동안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연수 지원은 본부장 추천을 통

해 5월 31일(금)까지 접수하며, 6월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사내 ERP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실시

노사협력팀은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기간은 4월 22일(월)~12월 31일(화)이며, 상담 기관인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소장 :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으로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6회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료 전액은 SBS에서 지원한다.

계열회사 소식

SBS 미디어 홀딩스 '어린이 희망워크 4Km' 개최 예정

SBS미디어그룹은 'SBS희망 TV'를 통해서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희망워크 4Km'를 개최한다. 5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삼양동 월드컵 공원 부근 4Km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SBS CNBC 소상공인 프로그램 호응

4월 1일(월)부터 27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 프로그램이 SBS CNBC와 소상공인방송 'yes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SBS CNBC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문화된 경제정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분화된 창업 정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는 물론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nickelodeon 어린이날 행사·특집 프로그램 방송

'니켈로디언'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 4일(토)~5일(일)까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 하였다. '스폰지밥 미스터리 탐험대'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직접 '아이파크몰' 4층 이벤트 광장과, 몰 내부 곳곳에 있는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숨겨진 비밀카드를 찾아 최종 미션에 도전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큰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있어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에게 행복한 어린이날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5월 4일(토), 5월 5일(일) 이틀간 <스폰지밥>, <타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등 최고 인기 시리즈들의 마라톤 방송과 니켈로디언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니켈로디언 무비특집>을 마련하였다.

SBS 뉴스텍 <아왕>,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분기별 베스트 촬영감독' 수상

지난 4월 9일(화)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가 주최하는 '분기별(1/4) 베스트 촬영감독' 시상식이 방송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SBS 월화드라마 <아왕>이 드라마 부문에 선정되어 SBS 뉴스텍 영상제작팀의 이순훈 차장과 홍성길 차장 대우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SBS 드라마와 촬영감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Advertisement for '금연캠페인' (No Smoking Campaign) featuring a photo of a cigarette and a sign that says '1차 금연캠페인 높은 성과 보여' (1st No Smoking Campaign shows high results).